

PIANIST

김선욱

SUNWOOK KIM



© Marco Borggreve

런던을 근거로 활동 중인 피아니스트 김선욱은 2006년 리즈 콩쿠르 우승자로 국제무대에 이름을 알렸다. 당시 18살이었던 김선욱은 리즈 콩쿠르 40년 역사상 최연소 우승자이자 첫 아시아 출신 우승자라는 기록을 남겼으며, 경연 결승에서 마크 엘더/할레 오케스트라와 연주했던 브람스 협주곡 1번으로 비평계의 극찬을 받았다.

동세대 연주자 중 두드러지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그는 런던 심포니(존 엘리엇 가디너, 다니엘 하딩), 로열 콘세르트허바우 오케스트라(정명훈), 베를린 방송교향악단(마렉 야노프스키), 북독일 방송교향악단, 핀란드 방송교향악단(사카리 오라모, 앤드류 맨지, 투간 소키예프),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블라디미르 아쉬케나지,

유라이 발추하, 에드워드 가드너), 런던 필하모닉(바실리 시나이스키),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정명훈), NHK 심포니(칼-하인즈 스테픈), 할레 오케스트라(마크 엘더) 등 세계 주요 오케스트라의 정기 연주회 협연자로 꾸준히 초청받고 있으며, 2014년에는 본머스 심포니 협연으로 BBC 프롬스에 데뷔했다.

2016/17시즌 김선욱은 루가노 RTSI 오케스트라, 쾰른 필하모닉, 툴루즈 캐피톨 국립교향악단 데뷔무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으며, 2014/15시즌 상주 음악가로 활동했던 본머스 심포니와는 차이콥스키 협주곡 1번을 연주하였다. 리즈 콩쿠르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긴밀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마크 엘더/할레 오케스트라와는 지난 시즌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3번으로 투어를 함께했으며, 브람스 협주곡 1&2번 레코딩을 진행했다. 이 앨범은 2017년 할레 오케스트라 레이블로 발매됐다.

독주자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김선욱은 베를린 필하모니, 파리 필하모니, 위그모어 홀, 테아트르 콜론을 포함한 주요 콘서트홀 무대에 올랐으며, 파리 살 플레엘에서 개최되는 'Piano 4 Etoiles'에도 정기적으로 초청받고 있다. 프랑스 라 로크 당테롱 페스티벌, 브뤼셀 클라라 페스티벌, 독일 루르 피아노 페스티벌, 런던 인터내셔널 피아노 시리즈 같은 페스티벌 역시 김선욱의 주요 활동 무대다. 한국에서는 2012년부터 2년에 걸쳐 LG아트센터를 무대로 베토벤 소나타 전곡 시리즈를 완수했고, 2014년 가을 바흐-프랑크-슈만으로 전국 리사이틀 투어를 가졌다.

2015년 가을 악첸투스(Accentus) 레이블로 베토벤 후기 소나타 '발트슈타인'과 '함머클라비어'를 담은 첫 독주앨범을 출판한 김선욱은 2016년 브람스 소나타 3번 등이 수록된 두 번째 솔로 앨범을 발매한 데 이어 2017년 베토벤 소나타 '비창', '월광', '열정'을 담은 세 번째 독주곡집을 선보였다. 앞서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발매한 2종의 협주곡 앨범 역시 호평 받았는데, 그 중 진은숙 피아노 협주곡집은 BBC뮤직매거진상과 국제클래식음반상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서울에서 태어난 김선욱은 3살에 피아노를 시작해 10살에 독주, 12살에 협연 데뷔 무대를 가졌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피아노를 전공하였고, 영국 왕립음악원 지휘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리즈 콩쿠르에 우승하기 앞서 독일 에틀링겐 국제 피아노 콩쿠르(2004), 스위스 클라라 하스킬 국제 피아노 콩쿠르(2005)에서 1등상을 수상하였다. 2013년 독일 본에 위치한 베토벤 생가 '베토벤 하우스' 멘토링 프로그램 첫 수혜자로 선정된 김선욱은 베토벤 하우스 소장 품을 독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했다.